

사회적 불안정이 사회적 안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 안보에서의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이화준 ■ 연세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사회적 불안정이 실제로 사회적 안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안보 개념과 사회적 안보에서 사회적 불안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국가별 시계열 데이터와 고정효과 모델을 활용하여, 사회적 불안정이 사회적 안보를 증진하는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발견했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 불안정이 사회적 안보 증진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인프라와 회복탄력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조명한다. 여기에 중급학교 진학률을 도구변수로 사용한 분석을 통해, 사회적 불안정과 사회적 안보 지표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불안정이 사회적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져 사회적 안보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지를 제시한다.

*주제어: 사회적 안보, 사회적 불안정, 회복탄력성

I. 서 론

안보 개념에 대하여 범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논쟁이 있어왔다. 좁은 개념으로 한정하기에는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개념으로 안보는 흔히 통칭되어왔지만, 볼드윈(Baldwin 1997)이 제시한 안보 개념은 인위적, 비인위적 위협으로부터

* 본 연구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힙니다(NRF-2022S1A5B5A17038138). 또한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Societal Security Studies Ad-hoc Lab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 되었음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적인 논평과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분께 감사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연구소 연구원, 육군사관학교 강사(E-mail: jsps1017@gmail.com)

인간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단순히 국가 단위의 안보 개념을 넘어서, 가시적 위협과 잠재적 가치를 모두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시적 위협과 잠재적 가치에는 국가안보만이 해당하기에는 좁으며, 따라서 포괄적인 안보개념에서는 전통적인 군사, 국가안보를 넘어서는 개념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해졌다.

기존의 전통적인 안보개념의 영역이 확장된 이유 중 하나로 인간안보의 등장 이 있다.¹⁾ 탈냉전 이후 다양한 문제들로 안보영역이 확장되고, 테러와 환경문제 등이 안보문제로 부상하며 인간안보의 중요성은 증가했다(홍용표 2006). 탈냉전 이후 촉발된 인간안보에 대한 제기는 개념적 범위에 대한 문제가 일찍이 제기 되었고 여전히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있다(Acharya 2001). 이러한 논쟁의 문제는 인간안보의 개념이 설정의 차원에서 총체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인간안보와 인간안보가 아닌 영역을 구분하는지 매끄럽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결국 인간안보를 통한 접근에 기반하여 안보의 대상이 개인 단위까지 확대될 때, 인간안보와 그 개념적 여집합의 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숙고가 더 필요하다(이혜정·박지범 2013). 인간안보 개념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북유럽에서 제시된 사회적 안보(Societal Security) 개념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Christensen et al. 2018; Larsson & Rhinard 2020; Wæver 1993). 사회적 안보는 “사회가 변화와 실존하는 혹은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본질적인 특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짧게 정의된다(김성진 2018, 103-104). 사회적 안보는 코펜하겐 학파에 의해 발전된 개념으로, 전통적인 국가 안보 개념을 넘어서는 보다 포괄적인 안보 개념이다. 사회적 안보의 주요 특징은 대체로 사회정체성 차원의 보호, 집단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며, 비군사적 위협도 중요한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며, 위협 인식의 주관성을 인정하고, 안보화가 이뤄지는 과정에 주목한다(Wæver 1993). 따라서 사회적 안보의 개념은 사회안보(Social Security)의 개념과 구별된다. 사회안보가 사회 전반의 안정과 개인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더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사회적 위협, 주로 범죄와 테러 문제를 다루는 반면에, 사회적 안보는 사회의 정체성과 문화적 지속성에 중점을 두며 장기적, 구조적 위협을 다룬다. 또한 사회안보가 주로 정부 주도의 법 집행과 사회 정책을 통해

1) <https://www.ucipfg.com/Repositorio/MCSH/MCSH-05/BLOQUE-ACADEMICO/Unidad-01/complementarias/3.pdf>. accessed 22 July 2024

구현된다면, 사회적 안보는 문화 정책, 교육, 사회적 담론 형성 등 더 광범위한 접근을 취한다.

인간안보를 다룸에 있어서 사회적 안보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한다면, 먼저 주관적 성격이 강한 인간안보 개념에 있어서 사회적 안보의 조작적 정의인 개인의 생존과 그 제반 여건 확보라는 개념을 통하여 상호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인간안보는 개념적으로 행위 차원의 주체가 개인으로 국한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에 사회적 안보를 적용한다면 개인 차원의 자력구제에 안보행태가 머무르지 않고, 사회공동체 차원에서의 안보의 확보 및 안보수단과 정책의 제공을 다룰 수 있다(민병원 2012, 232-233; 이병하 2018, 39). 그리고 사회적 안보로 접근할 때에 인간안보의 측정으로 그 사회의 보건-인구 지표를 측정할 수 있다는 이점도 존재한다. 결국의 보건-인구 지표는 사회적 층위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안보를 적용한 인간안보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

다만 사회적 안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쉽게 확대되지 않았다. 전통적인 안보에서 새로운 안보문제로 인해 안보영역이 확대되지만, 이렇게 확대된 안보영역의 나타나는 안보문제의 영향과 이에 대응하는 행태가 전통적인 안보의 연장선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Bilgic 2013). 이에 대해 안보가 아닌 해방(emancipation)과 같이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관점도 등장했지만(Booth 1991),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지는 실증적 차원에서는 부족했다. 이에 있어서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같은 개념은 기존의 전통적 안보와는 다른 비전통적인 안보가 어떻게 행태되고 구현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등장했다(Atkinson et al. 2022). 본 연구는 사회적 안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며, 사회적 안보가 기존의 전통적인 안보 개념과 달리 어떻게 실체화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사회적 안보에서의 사회적 불안정

본 연구는 사회적 안보를 측정하기 위해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했다. 이는 사회적 인간안보의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구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건강은 단순히 의료와 보건환

경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의료와 보건환경을 구성하는 사회구조가 전반적으로 반영되며, 이는 사회적 안보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이 두 지표는 단순한 보건-인구 지표를 넘어 사회의 전반적인 안녕과 발전 수준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대수명은 개념적으로 평균수명을 나타내며, 그 해에 출생하는 인구의 기대여명을 의미한다. 기대수명은 실제로 해당 국가의 보건 수준을 나타내며, 실제로 사회적으로 개인의 보호에 대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이와 함께 사용되는 지표는 영아사망률이다. 영아사망률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수를 해당 연도의 1년 동안의 총출생아 수로 나눈 비율로, 사회적 보호와 환경여건 수준을 대표한다. 만약 특정 변수가 기대수명에 긍정적, 영아사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 변수는 의료와 보건환경을 구성하는 사회구조, 그리고 사회적 보호와 환경여건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대수명이 높다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인간안보가 높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기대수명은 한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 의료 시스템의 질, 환경 조건, 사회 안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이다. 센(Sen 1998)은 기대수명을 ‘발전의 기본적 지표’로 간주하며, 이는 단순히 수명의 길이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노벤(Veenhoven 1996)은 기대수명이 사회의 ‘살만한 가치(livability)’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대수명은 사회적 안보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한편, 영아사망률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의료 시스템의 질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 환경의 질,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정도를 반영한다. 리드패스와 알로티(Reidpath & Allotey 2003)는 영아사망률이 전체 인구의 건강 상태를 대표하는 유용한 지표라고 주장했다. 이는 영아사망률이 단순히 아동 건강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녕 상태를 반영하는 포괄적인 지표임을 시사한다.

이 두 지표를 사회적 안보의 대리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적절성을 가진다. 먼저,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은 사회의 다양한 측면(의료, 환경, 교육,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포괄적인 특성을 지닌다. 또한, 이들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며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가 존재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할 수 있으며, 사회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책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두 지표가 국제연합(UNDP 1994)이 제

시한 인간안보의 핵심 요소인 건강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가 단순히 인구통계학적 현상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안보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함으로써, 본 연구는 사회적 안보의 핵심적 측면을 포착하고, 사회적 불안정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적 불안정과 사회적 안보 간의 복잡한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안보가 어떻게 작동하는 지에 대해, 전통적으로는 비안보의 차원으로 여겨지던 사회적 불안정이 사회적 안보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요한 독립변수로 다루는 변수는 사회적 불안정이다. 사회적 불안정은 실제로 대체로 사회적 불안정을 유발하는 기본적으로 불안정은 인간안보의 저해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동시에 사회안보와 정치안보의 차원에서도 불안정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부정적 요인으로만 여겨져 왔다. 이는 사실 전통적인 안보에서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안보의 차원 안에서는 대부분의 불안정을 안보의 불안요인으로 간주하고,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러나 불안정을 안보의 저해요인으로 무조건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인위적, 비인위적 위협으로부터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안보라면, 사회적 불안정이 위협으로 바로 직결되지 않거나 혹은 사회적 불안정이 오히려 가치를 보호하거나 증진하는 효과가 존재한다면 역으로 안보 달성과 사회적 불안정이 연결될 수 있다. 물론 전통적인 안보관점에서 이를 설명하는 것은 불안정은 안보에 대한 방해요인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안보와 인간안보에 대한 접근에서의 사회적 안보에서의 사회적 불안정 그 자체가 안보적 불안요인으로만 해석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부스(Booth 1991)의 해방 개념에서는, 공포 자체가 해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해방 가능한 공포는 궁극적으로 안보를 방해하는 요인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불안정은 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임계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안보의 저하요인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도시이다. 도시는 사회적 안보의 주요한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 안보의 수많은 다이내믹을 만들어내는 장으로 기능한다. 세계의 인구는 점차적으로 점점 도시에 집중되며, 이는 세계에서의 도시의 비중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으며, 실제로 평화와 안보 문제를 도시화의 맥락과 함께 연구하는 작업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Glass et al. 2022;

Williams 2018). 도시화는 정치발전과 경제발전 모두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고(Davis & Henderson 2003; Glaeser & Steinberg 2017), 심지어 근대화론의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도시화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도시는 현대사회에서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도시에 대해서는 도시가 테러나 기후변화와 같은 안보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적지 않지만(Lawson et al. 2008)²⁾ 기본적으로 도시는 공간적인 차원에서 회복탄력성이 존재한다. 도시는 전력, 물, 위생, 의료서비스와 같은 모든 필수 상품의 수입처이며 경제적으로 인구를 부양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다(Atkinson et al. 2022, 10). 이는 사회안에서의 도시의 문제가 안보적, 공간적으로 모두 중요함을 보여주며, 곧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안보를 다루는 주된 독립변수로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 지표를 사용했다(Thomson et al. 2023). 이는 12가지 유형의 사회적 불안정이 포함되며,³⁾ 관련 행위자와 대상, 각 사건의 시작과 종료 시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사망자의 발생여부를 구분한다. 또한 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도시의 불안정한 사건이 도시 인구의 증가에 기여한다는 양적 상관관계를 발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 지표를 이용하여 사회적 안보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변수들을 통해서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이 사회의 인간안보 차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간안보와 안보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질문인 안보(security)와 비안보(insecurity)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전통적인 안보에서 불안정 그 자체는 비안보적 요인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안보개념이 점차 확장되고 변화하면서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왔다(Booth 1991; Wæver 1993).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비안보와 안보의 관계를 기존의 비안보로 여겨져 왔던 사회적 불안정이 전통적인 안보의 관념처럼 과연 비안보와 위협, 그리고 안보 저해요인으로 이어지는지, 혹은 바로 연결되지 않거나 역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메커니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

2) <https://www.un.org/en/chronicle/article/evolution-and-challenges-security-within-cities>. accessed 26 June 2023

3) USD 데이터는 다음 12가지 유형의 사회적 불안정 사건을 포함한다: 전쟁, 내전, 무장 충돌/전투, 무장 공격, 친정부 테러(탄압), 반정부 테러, 공동체 테러, 조직적 폭력 시위, 자발적 폭력 시위, 조직적 시위, 친정부 시위, 자발적 시위. 이외에 기타 유형도 포함되어 있다. 각 유형은 특정 조건과 참여자에 따라 구분되며, 폭력 수준과 조직화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는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다루는 변수들은 사회적 불안정이 국가안보가 아닌 인간안보에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볼 것이다. 먼저, 기존의 전통적인 접근처럼, 사회적 불안정이 사회적 안보에 악영향으로 작동한다는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H 1-1.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이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에 부정적으로 작동한다.

다만 이와 반대로 사회적 불안정이 오히려 사회적 안보를 구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사회적 불안정이 애당초 비안보의 영역에 있지 않고, 설령 비안보적 요소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협과 안보의 저해요인과 직결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사회적 불안정이 오히려 사회적 안보를 강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이 역로의 가설이 성립 가능하다.

H 1-2.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이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물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불안정의 강도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사망자가 발생한 불안정 사건과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불안정 사건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통제변인에 대외분쟁을 추가하여, 대외 분쟁이 사회적 안보에 주는 영향과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이 사회적 안보에 주는 영향의 정도를 비교할 것이다.

Ⅲ. 사회적 불안정은 (비)안보인가?

분석방법은 국가별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 1960년부터 2014년까지 결측치가 존재하는 불균형 데이터이며, 138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에 있어서 사회적 불안정의 효과가 즉시성을 가지고 작동한다면 바로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찾는 것으로도 충분하겠지만 즉시적인 효과가 아니

라 지연된 효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연 변인을 분석에 추가하였다. 또한 단순히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만을 독립변수로만 넣을 때 사회적 불안정의 효과를 확인하기에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 사건에 의한 사회불안지표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Banks & Wilson 2022). 여기에 기존 연구와 분석에서 활용된 여러 통제변인들을 활용하여 변인 통제 및 분석의 엄밀성과 강건성을 강화하였다.

대외분쟁은 전통적인 안보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대외적인 군사위협을 통제하고, 사회적 불안정의 영향과 비교하기 위하여 통제변인으로 추가하였다. 대외분쟁은 많이 통용되는 MID 데이터를 사용하였다(Braithwaite 2010). 이외의 경제적 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Worldbank의 1인당 GDP 데이터를 사용하여 통제하였으며,⁴⁾ 마찬가지로 국가의 보건역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인구당 의사 수도 통제변인으로 추가하였다(Banks & Wilson 2022). 여기에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을 중점적으로 다루다보니 도시화의 정도를 통제변인으로 추가해야만 사회적 불안정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인으로 추가하였다(Banks & Wilson 2022). 추가적으로 통제변인은 사회적 안보의 차원에서 민족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민족다원성을 통제변인으로 추가하였다(Drazanova 2020). 모두의 사회적 불안정의 강도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민족적 변인은 사회적 안보에 다른 작용을 하는 기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는 것이 분석에서의 적절성을 가진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행정역량에 따라서 같은 사회적 불안정 사건이 다르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역량 지표를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Hanson & Sigman 2021).

<표 1>의 분석 결과는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USD)과 기대수명 간의 관계에 대해 주목할 만한 통찰을 제공한다. 우선, 모든 모델에서 USD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 안보 패러다임의 예측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이 오히려 기대수명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모델 (1)에서는 USD가 1단위 증가할 때 기대수명이 0.098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의 상관관계는 3년, 5년, 10년의 지연 효과를 고려한 모델 (2), (3), (4)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이는 사회적 불안정의 영향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도 지속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R제곱값이 지연 효과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

4)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 accessed 8 September 2023

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모델 (1)에서 R제곱값이 모델 (4)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불안정의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비교적 단기간에 발현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불안정과 사회적 안보 간의 관계가 단순한 인과관계를 넘어서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함을 보여준다.

(표 1)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과 기대수명과의 고정효과모형 분석

| | <i>Dependent variable:</i> | | | |
|-------------------------|------------------------------|------------------------------|------------------------------|------------------------------|
| | 기대수명 | | | |
| | (1) | (2) | (3) | (4) |
| USD | 0.098*** (0.020) | | | |
| USD (3년 지연) | | 0.069*** (0.019) | | |
| USD (5년 지연) | | | 0.091*** (0.019) | |
| USD (10년 지연) | | | | 0.085*** (0.018) |
| 대외분쟁 | -0.016 (0.039) | -0.003 (0.038) | -0.009 (0.038) | -0.052 (0.037) |
| 민족다원성 | 29.699*** (2.794) | 28.339*** (2.838) | 27.431*** (2.855) | 26.855*** (2.940) |
| 1인당 GDP | -0.00004** (0.00002) | -0.00002 (0.00002) | -0.00000 (0.00002) | 0.00001 (0.00002) |
| 인구당 의사 | 0.002*** (0.0002) | 0.002*** (0.0002) | 0.002*** (0.0002) | 0.002*** (0.0002) |
| 국가역량 | 3.813*** (0.211) | 3.412*** (0.209) | 3.301*** (0.207) | 2.898*** (0.208) |
| 도시화 | 0.015*** (0.001) | 0.013*** (0.001) | 0.011*** (0.001) | 0.007*** (0.001) |
| Observations | 4,835 | 4,563 | 4,367 | 3,845 |
| R ² | 0.370 | 0.339 | 0.322 | 0.274 |
| Adjusted R ² | 0.350 | 0.317 | 0.299 | 0.246 |
| F Statistic | 393.211*** (df = 7; 4690) | 323.175*** (df = 7; 4418) | 286.097*** (df = 7; 4222) | 199.643*** (df = 7; 3700) |

Note: *p<0.1; **p<0.05; ***p<0.01

〈표 2〉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의 사망/비사망사건과 기대수명과의 고정효과모형 분석

| | <i>Dependent variable:</i> | | | |
|-------------------------|------------------------------|------------------------------|------------------------------|------------------------------|
| | 기대수명 | | | |
| | (1) | (2) | (3) | (4) |
| USD 사망사건 | 0.148*** (0.041) | | | |
| USD비사망사건 | 0.064** (0.032) | | | |
| USD 사망사건 (3년 지연) | | 0.117*** (0.039) | | |
| USD비사망사건 (3년 지연) | | 0.037 (0.030) | | |
| USD 사망사건 (5년 지연) | | | 0.143*** (0.038) | |
| USD비사망사건 (5년 지연) | | | 0.055* (0.030) | |
| USD 사망사건 (10년 지연) | | | | 0.062 (0.040) |
| USD비사망사건 (10년 지연) | | | | 0.099*** (0.028) |
| 대외분쟁 | -0.018 (0.039) | -0.004 (0.038) | -0.010 (0.038) | -0.052 (0.037) |
| 민족다원성 | 29.477*** (2.798) | 28.136*** (2.842) | 27.102*** (2.862) | 26.986*** (2.948) |
| 1인당 GDP | -0.00004** (0.00002) | -0.00002 (0.00002) | -0.00000 (0.00002) | 0.00001 (0.00002) |
| 인구당 의사 | 0.002*** (0.0002) | 0.002*** (0.0002) | 0.002*** (0.0002) | 0.002*** (0.0002) |
| 국가역량 | 3.820*** (0.211) | 3.418*** (0.209) | 3.311*** (0.207) | 2.897*** (0.208) |
| 도시화 | 0.015*** (0.001) | 0.013*** (0.001) | 0.011*** (0.001) | 0.007*** (0.001) |
| Observations | 4,835 | 4,563 | 4,367 | 3,845 |
| R ² | 0.370 | 0.339 | 0.322 | 0.274 |
| Adjusted R ² | 0.351 | 0.317 | 0.299 | 0.246 |
| F Statistic | 344.381*** (df = 8; 4689) | 283.080*** (df = 8; 4417) | 250.731*** (df = 8; 4221) | 174.712*** (df = 8; 3699) |

Note: *p<0.1; **p<0.05; ***p<0.01

<표 2>의 분석 결과는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을 사망 사건과 비사망 사건으로 구분하여 기대수명과의 관계를 조명한다. 이 결과는 사회적 불안정의 성격에 따른 영향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우선, 사망 사건을 동반한 사회적 불안정은 모든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모델 (1)에서 USD 사망사건의 계수는 비사망 사건의 계수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회적 불안정 사건이 기대수명 증가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연 효과를 고려한 모델 (2), (3), (4)에서도 사망 사건의 영향력은 계속 관찰되며, 그 크기도 비사망 사건에 비해 일관되게 높게 유지된다. 이는 심각한 사회적 불안정 사건이 사회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자극을 주어, 대응 메커니즘을 작동시킬 가능성을 제시한다.

반면, 비사망 사건의 경우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모델 대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사회적 불안정 사건도 장기적으로는 기대수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불안정의 강도와 사회적 안보 간의 관계가 선형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제변수의 효과는 <표 1>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나, 주목할 만한 차이점도 있다. 특히, 대외분쟁 변수가 일부 모델에서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는 내부적 사회 불안정과 외부적 위협이 사회적 안보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국내 불안정 지표와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 지표는 특성과 영향력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국내 불안정 지표는 국가 전체의 불안정 수준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반면,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 지표는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측정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두 지표가 기대수명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 지표가 기대수명과 즉각적이고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과 달리, 국내 불안정 지표는 단기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도시 단위의 불안정 사건이 지역 사회에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가 수준의 불안정은 그 영향이 더 넓은 범위에 걸쳐 분산되어 나타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3〉 국내 불안정 지표와 기대수명과의 고정효과모형 분석

| | <i>Dependent variable:</i> | | | |
|-------------------------|------------------------------|------------------------------|------------------------------|------------------------------|
| | 기대수명 | | | |
| | (1) | (2) | (3) | (4) |
| 국내 불안정 | 0.00002 (0.00003) | | | |
| 불안정 (3년 지연) | | -0.00001 (0.00003) | | |
| 불안정 (5년 지연) | | | -0.00001 (0.00002) | |
| 불안정 (10년 지연) | | | | 0.0001*** (0.00003) |
| 대외분쟁 | -0.015 (0.038) | -0.001 (0.036) | -0.009 (0.036) | -0.058 (0.036) |
| 민족다원성 | 29.732*** (2.756) | 25.461*** (2.778) | 23.371*** (2.855) | 17.660*** (3.129) |
| 1인당 GDP | -0.0001*** (0.00002) | -0.00005*** (0.00002) | -0.00004** (0.00002) | -0.00000 (0.00002) |
| 인구당 의사 | 0.002*** (0.0002) | 0.002*** (0.0002) | 0.002*** (0.0002) | 0.002*** (0.0002) |
| 국가역량 | 3.630*** (0.209) | 2.836*** (0.204) | 2.692*** (0.206) | 2.689*** (0.218) |
| 도시화 | 0.018*** (0.001) | 0.025*** (0.001) | 0.025*** (0.001) | 0.024*** (0.001) |
| Observations | 4,918 | 4,510 | 4,241 | 3,571 |
| R ² | 0.386 | 0.409 | 0.398 | 0.361 |
| Adjusted R ² | 0.366 | 0.388 | 0.376 | 0.334 |
| F Statistic | 427.557*** (df = 7; 4766) | 430.634*** (df = 7; 4359) | 386.886*** (df = 7; 4090) | 276.630*** (df = 7; 3422) |

Note: *p<0.1; **p<0.05; ***p<0.01

또한 국내 불안정 지표가 10년 지연 모델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국가 수준의 불안정이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안보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적 차원의 불안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 시스템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더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과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국가 수준의 불안정은 단기적으로는 그 영향이 미미하거나 불분명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기대수명 증가와 같은 사회적 안보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불안정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발전과 안보 증진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제변인에서 대외분쟁이 기대수명과 상관관계가 없음이 전방위적으로 발견된다. 즉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영역인 분쟁 자체가 사회적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정과 비교하면 그 중요성은 사회적 불안정이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 대외분쟁이 다른 통제변인이 통제될 때는 사회적 안보의 차원에서 비안보로만 기능한다고 설명하기에는 복잡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민족다원성 지표는 기대수명과 양의 상관관계로 강고하게 나타난다. 이는 민족다원성이 오히려 인간안보에서의 사회적 안보의 차원을 증진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족 간의 갈등 자체가 사회적 안보에 저해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지만(김두진 2014; Mayall 1990), 실제로 나타나는 지표는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이는 민족다원성 자체가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구당 의사와 국가역량은 기대수명에 대하여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만 여러 사례연구의 지점에서 논쟁이 있었던, 도시화는 기대수명에 긍정적 영향으로 연결되는 것이 나타났다. 즉 사회적 안보에서의 차원에서 도시화가 낳는 부수적 피해의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화가 사회적 안보에서 가장 중대하게 보이는 기제는 긍정적 방향이 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이는 도시화가 발전론에서 가지는 효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도시화의 부작용과는 별개로, 도시화 자체가 인간안보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도시화를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이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표 4〉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과 영아사망률와의 고정효과모형 분석

| | <i>Dependent variable:</i> | | | |
|-------------------------|------------------------------|------------------------------|------------------------------|------------------------------|
| | 영아사망률 | | | |
| | (1) | (2) | (3) | (4) |
| USD | -0.752*** (0.097) | | | |
| USD (3년 지연) | | -0.601*** (0.090) | | |
| USD (5년 지연) | | | -0.638*** (0.087) | |
| USD (10년 지연) | | | | -0.480*** (0.083) |
| 대외분쟁 | -0.265 (0.186) | -0.330* (0.182) | -0.341* (0.177) | -0.105 (0.170) |
| 민족다원성 | -147.897*** (13.281) | -144.705*** (13.389) | -144.919*** (13.331) | -149.067*** (13.444) |
| 1인당 GDP | 0.001*** (0.0001) | 0.001*** (0.0001) | 0.001*** (0.0001) | 0.001*** (0.0001) |
| 인구당 의사 | -0.011*** (0.001) | -0.011*** (0.001) | -0.010*** (0.001) | -0.009*** (0.001) |
| 국가역량 | -23.916*** (1.017) | -22.387*** (1.001) | -22.131*** (0.981) | -19.804*** (0.952) |
| 도시화 | -0.070*** (0.003) | -0.062*** (0.003) | -0.055*** (0.003) | -0.040*** (0.003) |
| Observations | 4,598 | 4,394 | 4,238 | 3,789 |
| R ² | 0.371 | 0.344 | 0.336 | 0.299 |
| Adjusted R ² | 0.351 | 0.322 | 0.312 | 0.272 |
| F Statistic | 375.699*** (df = 7; 4454) | 318.249*** (df = 7; 4250) | 295.375*** (df = 7; 4094) | 222.204*** (df = 7; 3645) |

Note: *p<0.1; **p<0.05; ***p<0.01

〈표 5〉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 사망/비사망사건과 영아사망률와의 고정효과모형 분석

| | <i>Dependent variable:</i> | | | |
|-------------------------|------------------------------|------------------------------|------------------------------|------------------------------|
| | 영아사망률 | | | |
| | (1) | (2) | (3) | (4) |
| USD 사망사건 | -1.007*** (0.190) | | | |
| USD 비사망사건 | -0.568*** (0.153) | | | |
| USD 사망사건 (3년 지연) | | -0.943*** (0.182) | | |
| USD 비사망사건 (3년 지연) | | -0.367*** (0.141) | | |
| USD 사망사건 (5년 지연) | | | -1.034*** (0.175) | |
| USD 비사망사건 (5년 지연) | | | -0.363*** (0.137) | |
| USD 사망사건 (10년 지연) | | | | -0.393** (0.180) |
| USD비사망사건 (10년 지연) | | | | -0.533*** (0.129) |
| 대외분쟁 | -0.254 (0.186) | -0.327* (0.182) | -0.336* (0.177) | -0.105 (0.170) |
| 민족다원성 | -146.639*** (13.303) | -143.088*** (13.404) | -142.242*** (13.362) | -149.578*** (13.479) |
| 1인당 GDP | 0.001*** (0.0001) | 0.001*** (0.0001) | 0.001*** (0.0001) | 0.001*** (0.0001) |
| 인구당 의사 | -0.011*** (0.001) | -0.011*** (0.001) | -0.010*** (0.001) | -0.009*** (0.001) |
| 국가역량 | -23.964*** (1.018) | -22.436*** (1.001) | -22.205*** (0.981) | -19.797*** (0.952) |
| 도시화 | -0.070*** (0.003) | -0.062*** (0.003) | -0.055*** (0.003) | -0.040*** (0.003) |
| Observations | 4,598 | 4,394 | 4,238 | 3,789 |
| R ² | 0.372 | 0.345 | 0.337 | 0.299 |
| Adjusted R ² | 0.351 | 0.322 | 0.313 | 0.271 |
| F Statistic | 329.146*** (df = 8; 4453) | 279.290*** (df = 8; 4249) | 259.660*** (df = 8; 4093) | 194.427*** (df = 8; 3644) |

Note: *p<0.1; **p<0.05; ***p<0.01

영아사망률 변인은 기대수명 변인으로 측정되지 않는 사회적 안보의 차원을 다루는 데 적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사회적 불안정 변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통제변인에서의 차이는 있었다.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 모두 불안정은 우리가 가지는 통념과 달리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통념과 다른 관점의 제시와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은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에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지연변인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결국 국가 전체의 불안정 지표와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을 비교할 때도 상대적으로 더 큰 효과가 관찰된다는 것은 도시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다른 불안정의 문제나 지표보다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과 같은 사회적 안보와 더 직관적인 연결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결국 가설 H1-1보다는 H1-2의 가설이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의 연장선에서 비안보와 안보의 문제를 보다 성찰해볼 수 있다.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은 비안보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은 비안보인 동시에 사회적 안보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는 즉 비안보와 안보의 관계가 비안보가 안보의 부정적이고, 안보의 저하가 비안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트레이드 오프의 문제로 해석할 수 없다는 설명이 된다. 결국 사회적 불안정이라는 비안보가 어떻게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필요가 존재한다. 이는 결국 사회적 불안정의 문제가 안보화가 되며, 이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고, 다시 이것이 안보적 기여로 이어지는 안보화의 트랙 위에서 벌어지는 현상임을 주장할 수 있다(Buzan et al. 1998, 23-24).

비안보가 안보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으로 회복탄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Chandler 2012; Fjäder 2014). 사회적 불안정으로 나타나는 비안보의 문제가 이른바 회복탄력성을 증강해준다는 것이다. 즉 사회 전체에 매우 중대한 위협으로 작동하지 않는 비안보는 오히려 문제발생을 통해서 안보를 강화하는 기제가 된다. 이는 신체에서 일어나는 면역작용과 유사한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앞에서의 안보화와 연결하면 안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로 비안보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상정하며, 해결할 수단을 찾는 과정이 되는 것이 회복탄력성을 증진하는 과정이 된다. 여기에서 사회적 불안정과 회복탄력성을 연결하는 매개는 사회적 다원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이미 많은 회복탄력성 연구에서 다원성은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고 주장되어진 바 있다(Canetti et al. 2014; Lieberman et al. 2021;

Richards 2012). 사회적 불안정의 근간에는 다양성의 충돌이 존재하며, 결국 다양성 충돌의 과정에서 많은 불안정의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은 결국 사회 내부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모두 사회적 불안정이라는 비안보가 안보에 대한 기여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구현해준다. 따라서 이를 추적하기 위한 분석은 보다 엄격하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불안정이 사회적 불안정이 회복탄력성을 실제로 높이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조성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가 실제로 사회적 안보에 기여하는 지에 대한 과정을 불필요가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IV. 사회적 불안정과 회복탄력성 창출과의 관계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은 앞서서도 언급한 사회적 다원성과 다원성이 주조하는 다이내믹에서 기반한다는 것이다. 먼저 실제로 사회와 민주주의가 창출하는 다원성은, 전반적으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Burnell & Calvert 1999; Canetti et al. 2014; Lieberman et al. 2021; Plattner 2010). 이러한 설명들은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의 사회적 다원성과 다원성이 주조하는 다이내믹이 만들어 내는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과 같은 맥락에서 기인할 수 있다. 이러한 회복탄력성이 있는 사회는 인간안보와 민간인 보호의 차원에서 기초 요건으로 작동한다(Bourbeau 2013; Chandler 2012; Fjäder 2014; Kaufmann 2016; Rhinard & Sundelius 2010; Zebrowski 2013). 인간안보의 관점에서는 개인, 사회, 국가, 민간, 기타 조직들의 연결이 위기상황에서 회복탄력성을 지향하며,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인간안보의 문제에 대한 예상, 예방, 대응, 복구 및 변환으로 나타난다(Atkinson et al. 2022; Chandler 2012).

사회적 불안정이 회복탄력성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은 복합적인 과정을 거치며, 이는 여러 이론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사회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불안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대응 방식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반두라와 월터스(Bandura & Walters 1977)의 주장처럼, 개인과 집단은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응적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이를 통해 집단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둘째, 제도적 수

용 이론(Institutional Adaptability Theory)에 따르면, 사회적 불안정은 기존 제도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이를 개선할 동기를 부여한다(North 1990). 이 과정에서 사회 시스템은 더욱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구조로 진화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셋째, 사회적 불안정은 시스템의 임계점(tipping point)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카우프만(Kauffman 1993)이 제시한 자기조직화 임계성(self-organized criticality) 개념에 따르면, 적절한 수준의 불안정은 시스템이 더 높은 수준의 질서와 조직화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자본 이론(Social Capital Theory)에 의하면, 불안정한 시기에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연대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계기가 된다(Putnam 2001).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는 향후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회복탄력성의 자원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다층적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적 불안정은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회 시스템의 적응력과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역설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다원성과 회복탄력성이 연결되는 메커니즘은 두 가지의 형태로 추정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다원성이 구축하는 다양성이 불안정을 만들지만, 동시에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요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사회적 다원성이 가지는 기능적 장점과 부작용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다른 하나는, 사회적 불안정이 발생하고 여기에 사회가 노출될수록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회복탄력성이 면역체계와 같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다원성이 불안정을 형성한다면 이는 곧 회복탄력성에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둘 다 모두 사회적 불안정이 회복탄력성에 기여하는 지점을 어느 정도 설명하며, 이는 실제로 앞의 회귀분석에서 민족적 다원성이 실제로 사회적 안보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과 연결할 수 있다. 민족적 다원성이 사회적 불안정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민족적 다원성이 만드는 다원성의 기능적 장점과 부작용, 혹은 이에 대한 대응 효과로 회복탄력성이 창출되는 과정이 사회적 불안정과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과 사회인프라, 그리고 사회적 안보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가분석에는 이른바 세 변수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므로 이를 살피는 데 적절한 도구변수 분석이 필요하다. 도구변수를 통해 추가로 분석을 진행할 가설은 다음과 같다.

H2. 사회적 불안정이 도시사회 인프라를 창출하고, 이것이 사회적 안보로 연결된다.

가설 검증을 위해 도시사회 인프라 수준을 측정할 적절한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중급학교 진학률을 통해 분석했다. 인프라는 단순히 하드웨어만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로 개개인에게 투영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한 인프라의 수가 아니라, 인프라의 수용능력과 이에 대한 제도적 이용을 살펴보는 진학률을 선택하였다. 많은 경우 초급학교는 도시와 촌락 모두 어느 정도의 일정한 비율이 존재한다. 그러나 중급학교는 많은 부분 도시에 집중되며, 도시의 인프라는 그 정도에 따라서 중급학교의 수를 결정하며, 도시에 충분히 인프라가 존재하고 중급학교가 공급된다면 중급학교의 진학률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중급학교 진학률이라는 지표는 다른 지표보다 비교적 높은 수의 관측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높은 관측치는 분석에 있어서 보다 엄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중급학교 진학률이라는 도구변수를 통해 사회적 불안정과 사회 인프라,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 안보로 어떻게 연결되는 지에 대한 분석은 보다 많은 설명을 제시해 줄 수 있다.

<표 6>의 결과는 사회적 불안정, 사회적 인프라, 그리고 사회적 안보 간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분석에서는 2단계 최소제곱법(2SLS)을 사용하여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더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중급학교 진학률을 도구변수로 사용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변수는 사회적 인프라의 수준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단순한 물리적 인프라가 아닌 사회의 교육 접근성과 인적 자본 개발 수준을 반영한다. 분석 결과,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은 중급학교 진학률에 강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이 오히려 교육 인프라 개선의 동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SLS 분석 결과, USD가 기대수명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OLS 분석에서의 양의 효과와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중급학교 진학률을 통한 간접 효과는 양으로, 이는 사회적 불안정이 사회적 인프라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대수명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불안정이 사회적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부정적 효과와 간접적인 긍정적 효과가 공존함을 보여준다. 또한 통제변수들의 효과 또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대외분쟁 변수는 OLS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2SLS

에서는 강한 양의 효과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 인프라의 매개 효과를 고려할 때, 외부적 위협이 오히려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사회적 불안정과 중급학교 진학률, 기대수명과의 고정효과와 고정효과 2SLS 분석

| | <i>Dependent variable:</i> | | | |
|-------------------------|------------------------------|------------------------------|----------------------|----------------------|
| | 중급학교 진학률 | | 기대수명 | |
| | 고정효과 | 고정효과 | 고정효과 2SLS | 고정효과 2SLS |
| USD | 8.476*** (0.870) | 0.098*** (0.020) | | -1.122** (0.521) |
| 대외분쟁 | | -0.016 (0.039) | 1.576*** (0.581) | 23.547** (11.027) |
| 민족다원성 | 1,213.908*** (116.819) | 29.699*** (2.794) | 16,550*** (4,899) | -91.387 (61.347) |
| 1인당 GDP | 0.003*** (0.001) | -0.00004** (0.00002) | | |
| 인구당 의사 | | 0.002*** (0.0002) | -0.004*** (0.001) | -0.021** (0.009) |
| 국가역량 | 246.813*** (8.520) | 3.813*** (0.211) | | |
| 도시화 | 0.436*** (0.025) | 0.015*** (0.001) | 0.006*** (0.001) | -0.010 (0.010) |
| 초급학교 진학률 | 0.030*** (0.009) | | | |
| 중등학교 진학률 | | | 0.025*** (0.001) | 0.068*** (0.022) |
| Observations | 5,013 | 4,835 | 4,831 | 4,831 |
| R ² | 0.350 | 0.370 | 0.299 | 0.015 |
| Adjusted R ² | 0.330 | 0.350 | 0.278 | -0.015 |
| F Statistic | 437.183*** (df = 6; 4863) | 393.211*** (df = 7; 4690) | 1,661.821*** | 36.425*** |

Note: *p<0.1; **p<0.05; ***p<0.01

여기에서 중급학교 진학률에 주요하게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불안정과 민족 다원성, 경제력, 국가역량, 도시화, 초급학교 진학률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중급학교 진학률을 도구변수로 적용하여 2SLS 분석을 통해 분석을 진행해보는다면 위의 표의 결과로 나타난다. 먼저 사회적 불안정이 중급학교 진학률에 긍정적인 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회적 다원성과 마찬가지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족 다원성도 마찬가지로의 상관관계 방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경제와 국가역량, 도시화와 같은 통제변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즉 이러한 변인들이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고 인프라 제도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최소한 이를 유도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도구변수로 중급학교 진학률을 사용하여, 중급학교 진학률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인들을 분석에 투입하여 진행한 2SLS와 비교하면 결국 중급학교 진학률로 나타난 사회적 인프라가 기대수명과 같은 사회적 안보 변인을 증진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실제로 2SLS에 사회적 불안정을 독립적으로 투입하여, 사회적 인프라를 증진시키는 효과 외에 사회적 불안정이 기대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여타의 분석과 달리 음의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회적 불안정이 사회적 인프라를 거쳐 사회적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사회적 불안정이 사회적 안보에 바로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 불안정이 사회적 안보에 있어서 양방향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사회적 인프라로 구축되는 기제를 제외했을 때 음의 방향이 드러나지만, 양방향의 효과를 총괄하여 살펴본다면 사회적 불안정이 사회적 안보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회적 불안정, 사회적 인프라, 그리고 사회적 안보 간의 복합적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며, 본 연구의 가설 H2를 강력히 지지한다.

이는 통제변인들의 상관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중급학교 진학률이 포함되면 먼저 보건의료 변인인 인구 당 의사 수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보건의료 변인마저도 사회적 인프라와의 연계에 의해 상관관계가 뒤집힘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인프라가 포함된 모델에서는 회복탄력성을 증가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외분쟁 역시 사회적 인프라가 독립된 상태라면 오히려 회복탄력성을 증가시켜주는 형태로 이어진다. 이는 오히려 기존의 비안보의 문제를 단순히 국가안보가 아니라 사회적 안보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면 비안보가 위협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보의 부재를 명백히 인식하게 하여 안보적 역

량의 강화로 이어지게 할 수도 있다. 즉 사회적 불안정이 단순히 안보를 저해하는 위협이 아니듯이, 대외분쟁 역시 비안보의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단순히 안보를 저해하는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사회적 안보의 차원에서는 논의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 안보의 접근이 전통적인 국가안보에서의 관점과의 상이성을 관념적 접근이나 해석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증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볼 수 있음이 드러난다. 안보는 그 개념 자체는 관념적 차원에 해당하지만, 안보의 실현과 실제는 실증의 차원에서 기능한다. 기존의 인간안보와 사회적 안보가 실증적 차원에서는 정책적 차원을 넘어서 쉽게 제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지만, 위의 통계분석은 이른바 비안보를 단순히 위협으로만 해석할 수도 없으며, 안보 이익에 해가 되는 변수로만 해석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V. 사회적 안보에 대한 속고의 필요성

본 연구는 사회적 불안정이 사회적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전통적인 안보 개념과 사회적 안보 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138개국의 1960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정효과 모델과 2단계 최소제곱법(2SLS)을 적용한 분석 결과,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이 기대수명 증가와 영아사망률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은 기대수명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영아사망률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 불안정이 단순히 안보를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안보를 강화하는 역설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적 불안정의 강도에 따른 분석 결과, 사망자가 발생한 불안정 사건이 사회적 안보 지표 개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각한 사회적 불안정이 사회 시스템에 더 강력한 자극을 주어 대응 메커니즘을 작동시킬 가능성을 제시한다. 셋째, 도구변수 분석 결과, 사회적 불안정이 사회적 인프라(중급학교 진학률로 측정) 구축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적 안보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안보 이론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기존의 전통적

안보 패러다임에서는 불안정을 단순히 위협으로 간주했지만, 사회적 안보의 맥락에서는 불안정이 오히려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비안보와 안보의 관계가 단순한 이분법적 대립이 아닌,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많은 경우 안보는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틀에서만 다뤄져 왔다. 심지어 안보의 대안적 개념들이 지속하여 등장했고, 이것이 실제의 정책 영역에서도 다뤄지고 있으나 이러한 개념들도 사실은 다뤄지는 관점은 전통적인 국가안보적 차원으로 접근되거나 너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다뤄진 측면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진행된 분석에 의하면 안보의 대안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안보는 기존의 전통안보적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새로운 차원을 보다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나타났다. 동시에 사회적 안보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논의를 넘어서 경험적인 차원에서 논의의 가능성을 본 연구는 제시하려 노력하였다. 이는 사회적 안보의 논의가 어떻게 가능한 지에 대한 논의의 시작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성이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는 메커니즘은 보다 더 규명이 필요하다. 사회적 인프라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회복탄력성이 구축된다는 설명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의 이론적 논의가 보다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논의는 기본적으로 비안보가 어떻게 안보를 구축하는 지에 대한 설명과 연결된다. 즉 본 연구에서 다뤄진 비안보와 안보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성이 회복탄력성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회복탄력성의 어느 정도의 수치화가 가능한 지표를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경험적 차원은 먼저 지표화가 필요하며, 실제로 회복탄력성과 인간안보, 더 나아가 사회적 안보를 다루는 연구들이 추상적인 개념 논의에 머물렀던 가장 큰 이유는, 회복탄력성의 수치화가 제한된 부분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연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안보 딜레마의 차원에서의 문제를 여전히 고려해야 한다(김병조 2011). 이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단기적 안보의 문제와 장기적 안보의 교환의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많은 경우 사회적 안보의 문제를 민족과 정체성의 문제로 연결하는 문제로만 간주했으나(Roc 2004), 이는 궁극적으로 단기적 안보의 추구가 장기적 안보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른바 시간 변수를 고려했을 때, 사회적 안보의 딜레마의 문제는 단기적 안보 추구가 장

기적 안보와 충돌하는 문제에 있으며 이러한 차원이 다뤄지는 것이 사회적 안보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작업에서 보다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도 다뤄진 사회적 불안정이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과 연결되는 메커니즘 역시 단기적 안보의 문제가 장기적 안보의 차원에서 기여한다는 점으로 분석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안보의 딜레마가 앞으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 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사회적 불안정이 회복탄력성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의 구체적 지표 개발과 함께, 사회적 불안정이 회복탄력성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안보 딜레마의 관점에서 단기적 안보와 장기적 안보 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안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적 불안정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관리될 경우 오히려 사회의 장기적 안보와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향후 안보 정책 수립과 연구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김두진. 2014. “유럽의 집단 정체성의 정치화와 사회 안보 개념: 런던 및 노르웨이 테러 사건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0(1), 129-151.
- 김병조. 2011. “‘사회안보’ 이론의 한국적 적용: 도입, 채택, 발전.” 『국방연구』 54(1), 1-24.
- 김성진. 2018. “유럽 내 시리아 난민과 사회안보.” 『정치정보연구』 21(1), 99-127.
- 민병원. 2012. “안보담론과 국제정치-안보개념의 역사적 변화를 중심으로.” 『평화연구』 20(2), 203-240.
- 이병하. 2018. “한국 난민 이슈의 정치화.” 『문화와 정치』 5(4), 33-68.
- 이혜정, 박지범. 2013. “인간안보: 국제규범의 창안, 변형과 확산.” 『국제지역연구』 22(1), 1-37.
- 홍용표. 2006.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대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재조명.” 『한국정치학회보』 36(4), 121-139.

영문 자료

- Acharya, Amitav. 2001. “Human Security: East versus West.” *International Journal* 56(3), 442-460.
- Atkinson, Andrew, Marco Grandi & Gergana Vaklinova. 2022. *Resilience, Human Security, and the Protection of Civilians?: A Critical Approach for Future Urban Conflict*. Washington, DC: Stimson Center.
- Baldwin, David A. 1997. “The Concept of Securit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3(1), 5-26.
- Bandura, Albert & Richard H. Walters.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nks, Arthur S. & Kenneth A. Wilson. 2022. *Cross-National Time-Series Data Archive*. Jerusalem, Israel: Databanks International.
- Bilgic, Ali. 2013. “Towards a New Societal Security Dilemma: Comprehensive Analysis of Actor Responsibility in Intersocietal Conflict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9(1), 185-208.

- Booth, Ken. 1991. "Security and Emancipation."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17, 313-326.
- Bourbeau, Philippe. 2013. "Resiliencism: Premises and Promises in Securitisation Research." *Resilience: International Policies, Practices and Discourses* 1(1), 3-17.
- Braithwaite, Alex. 2010. "MIDLOC: Introducing the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Location Dataset." *Journal of Peace Research* 47(1), 91-98.
- Burnell, Peter J. & Peter Calvert. 1999. *The Resilience of Democracy: Persistent Practice, Durable Idea*. London, UK: Frank Cass.
- Buzan, Barry, Ole Wæver & Jaap De Wilde. 1998.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Boulder,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 Canetti, Daphna, Israel Waismel-Manor, Naor Cohen & Carmit Rapaport. 2014. "What Does National Resilience Mean in a Democracy?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Armed Forces & Society* 40(3), 504-520.
- Chandler, David. 2012. "Resilience and Human Security: The Post-Interventionist Paradigm." *Security Dialogue* 43(3), 213-229.
- Christensen, Tom, Per Lægreid & Lise H. Rykkja. 2018. "Organizing for Societal Security and Crisis Management: Governance Capacity and Legitimacy." in *Societal Security and Crisis Management*, edited by Per Lægreid and Lise H. Rykkja, 1-25. London, UK: Palgrave Macmillan.
- Davis, James C. & J.Vernon Henderson. 2003. "Evidence o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Urbanization Process." *Journal of Urban Economics* 53(1), 98-125.
- Drazanova, Lenka. 2020. "Introducing the Historical Index of Ethnic Fractionalization (HIEF) Dataset: Accounting for Longitudinal Changes in Ethnic Diversity." *Journal of Open Humanities Data* 6, doi:10.5334/johd.16.
- Fjäder, Christian. 2014. "The Nation-State, National Security and Resilience in the Age of Globalisation." *Resilience* 2(2), 114-129.
- Glaeser, Edward L. & Bryce Millett Steinberg. 2017. "Transforming Cities:

- Does Urbanization Promote Democratic Change?” *Regional studies* 51(1), 58-68.
- Glass, Michael R., Taylor B. Seybolt & Phil Williams. 2022. “Introduction to Urban Violence, Resilience and Security.” in *Urban Violence, Resilience and Security: Governance Responses in the Global South*, edited by Michael R. Glass, Taylor B. Seybolt and Phil Williams, 1-19. Cheltenham, UK: Edward Elgar Publishing.
- Hanson, Jonathan K. & Rachel Sigman. 2021. “Leviathan's Latent Dimensions: Measuring State Capacity for Comparative Political Research.” *The Journal of Politics* 83(4), 1495-1510.
- Kauffman, Stuart A. 1993. *The Origins of Order: Self-Organization and Selection in Evolution*.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Kaufmann, Mareile. 2016. “Exercising Emergencies: Resilience, Affect and Acting out Security.” *Security Dialogue* 47(2), 99-116.
- Larsson, Sebastian & Mark Rhinard. 2020. *Nordic Societal Security*. London, UK: Routledge.
- Lawson, Robert J., Maciek Hawrylak & Sarah Houghton. 2008. “Human Security for an Urban Century BT - Environmental Change and Human Security: Recognizing and Acting on Hazard Impacts.” in *Environmental Change and Human Security: Recognizing and Acting on Hazard Impacts*, edited by P. H. Liotta, David A. Mouat, William G. Kepner and Judith M. Lancaster, 169-202. Dordrecht, Netherlands: Springer Netherlands
- Lieberman, Robert C., Suzanne Mettler & Kenneth M. Roberts. 2021. *Democratic Resilienc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yall, James. 1990.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 Societ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rth, Douglass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lattner, Marc F. 2010. “Democracy's Past and Future: Populism, Pluralism, and Liberal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21(1), 81-92.
- Putnam, Robert D. 2001.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Reidpath, Daniel D. & Pascale Allotey. 2003. "Infant mortality rate as an indicator of population health."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57(5), 344-346.
- Rhinard, Mark & Bengt Sundelius. 2010. "The Limits of Self-Reli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a Source of Resilience." in *Designing Resilience: Preparing for Extreme Events*, edited by Louise K. Comfort, Arjen Boin and Chris C. Demchak, 196-219. Pittsburgh: Pittsburgh University Press.
- Richards, Julian. 2012. "Intelligence Dilemma? Contemporary Counter-Terrorism in a Liberal Democracy."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27(5), 761-780.
- Roe, Paul. 2004. *Ethnic Violence and the Societal Security Dilemma*. London, UK: Routledge.
- Sen, Amartya. 1998. "Mortality as an indicator of economic success and failure." *The Economic Journal* 108(446), 1-25.
- _____. 2000. "Why Human Security?" <https://www.ucipfg.com/Repositorio/MCSH/MCSH-05/BLOQUE-ACADEMICO/Unidad-01/complementarias/3.pdf> (accessed 22 July 2024).
- Thomson, Henry, Karim Bahgat, Henrik Urdal & Halvard Buhaug. 2023. "Urban Social Disorder 3.0: A Global, City-Level Event Dataset of Political Mobilization and Disorder." *Journal of Peace Research* 60(3), 521-531.
-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994.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Vanderschueren, Franz. 2013. "The Evolution and Challenges of Security within Cities." <https://www.un.org/en/chronicle/article/evolution-and-challenges-security-within-cities> (accessed 26 June 2023).
- Veenhoven, Ruut. 1996. "Happy life-expectancy." *Social Indicators Research* 39(1), 1-58.
- Wæver, Ole. 1993. "Societal Security: The Concept." in *Identity, Migration, and the New Security Order in Europe*, edited by Ole Wæver, Barry Buzan, Morten Kelstrup and Pierre Lemaitre, 17-40. London, UK: Pinter.

- Williams, Phil. 2018.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Security Studies: An Introduction*, edited by Paul D. Williams and Matt McDonald, 453-66. London, UK: Routledge.
- Worldbank. 2022. “GDP (Current US\$) | Data.”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 (accessed 8 September 2023).
- Zebrowski, Chris. 2013. “The Nature of Resilience.” *Resilience* 1(3), 159-173.

Abstract

Studying the Impact of Social Disorder on Societal Security: Focusing on Resilience in Societal Security

Hwajun Lee ■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social disorder on societal security, proposing that, contrary to traditional security concepts, social disorder may positively influence societal security. Using fixed-effects models and instrumental variable analysis on country-specific time series data, we find that social disorder, while having short-term negative effects, ultimately enhances societal security by fostering soc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Specifically, using secondary school enrollment as an instrumental variable, I identify a mechanism where social disorder leads to improved educational infrastructure, thereby increasing the resilience of societal security. The study reveals that social disorder initially correlates negatively with life expectancy and positively with infant mortality rates, but these trends reverse over time, suggesting a complex, non-linear relationship. The findings challenge conventional perspectives on securit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long-term, resilience-focused approaches in security policy formulation.

Key Words: Societal Security, Social Disorder, Resilience